어린이 재가안거, 몸도 마음도 '쑥쑥~'

부산 홍법사, 구랍 20일 1차 수행 점검


재가안거 동안거에 동참한 홍법사 동림법회 어린이들이 주지 심산 스님에게 수행 점검을 받고 있다.

동림어린이법회 30여 명 참가
20일간 사경 등 수행 정진
3대 함께하는 수계식 계획

부산지역 어린이들이 겨울 재가안거 수행에 동참했다. 가족과 함께 매일 사불과 사경을 통한 수행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가족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구랍 20일 '동림 어린이 90일 재가안거' 1차 수행점검 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심산 스님과 동림 자모회 모임인 '세향공덕회' 회원 20여 명, 동림어린이 법회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전에 삼귀의를 올리고, 한글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이어 구랍 1일부터 작성한 수행교재 '관세음보살 42수 수인 사불' 과 '한글반야심경 사경집' 을 들고 주지스님에게 다가갔다. 어린이들은 수행교재를 하나씩 펼치며 스님의 확인 도장과 격려금을 받았다. 교재에는 매일 사불하며 마음으로 기도한 발원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 과 '행복', '지혜' 등 아름다운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수행하는 동안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잘 이겨냈고 어느덧 20일이 지났다"면서 "매일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전을 따라 적으며 수행을 잘하고 있어 기쁘다. 더욱 큰 성장이 앞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란주(금양중 · 13) 학생은 "한글 반야심경을 하는 동안 보살이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는다"며 "또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니 더욱 집중도 잘되고 어머니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했다.

사불 수행을 하는 초등학교 김민재(당감초 · 9) 학생은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 부처님의 손을 그리고 기도하며 등교하고 있다.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모회는 동림 어린이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효과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자모회 회원들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사불교재를 편찬하고, 수행 및 개인 발원문 읽기, 수행 일기를 집에서 지도한다.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모회 회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수행내용을 모두 SNS 네이버밴드를 통해 공유하고 서로를 독려하는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경숙 홍법사 청소년 교육연구소장은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어 최대한 아이들의 수행 동참 의지를 존중했다"며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림 어린이 재가 안거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20일마다 수행을 점검하며 총 5차례 주지 심산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재가 안거 후에는 장학금을 별로도 마련해 참가 어린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홍법사는 어린이 사불과 사경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 가족 3대가 함께 수계를 받는 특별한 수계식도 봉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템플스테이, 자유학기제 대안 '주목'

선운사, 중학교 접목 방안 모색


선운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참선을 체험하고 있는 영선중 학생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로 유명한 고창 선운사 템플스테이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구랍 2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고창 영선중 학생 57명을 초청해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앞서 18일 연합고사를 마친 3학년 위주로 참가한 학생들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범종 타종, 예불, 명상, 발우공양 등을 체험하며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울력 등을 통해 공동체 생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선운사는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학생과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를 개발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관심과 돌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주지 경우 스님 "고창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가족 간 화합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학교적응은 물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현예나(영선중 3) 양은 "스님들의 예불모습을 TV에서 볼 때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스님들의 수행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며 "우리고장의 명소인 선운사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잠시 공부와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심신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선운사 연수국장 정혜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자유학기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고 차분하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9교구 신도회 총회 및 송년의 밤

교구 감사 우수사찰 3곳 시상도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회장 손창수)는 구랍 17일 대구문화웨딩에서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및 소임국장스님과 각 말사 주지스님,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 신도회장, 각 말사 신도회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시상식과 행복바라미 지원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교구감사에서 우수사찰로 선정된 성주 관운사 주지 지산 스님과 죽림사 주지 법성스님, 대비사 주지 지연 스님이 상과 부상을 받았다. 특히 수행과 봉사로 전법교화 및 불교발전에 공헌한 점도 인정됐다.

이어 감사패는 성지암 주지 대윤스님, 금강사 주지 청수 스님이, 공로패는 유가사 신도회 곽동화 불자 외 4곳 사찰 신도회가 수상했다.

이날 제9교구 신도회는 총회 안건으로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신도회 조직구성의 건, 신도회 활성화 방안의 건을 다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희망의 등불 환히 비추어라!"

부산시설공단이 주최하고, 부산등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송구영신한마당축제' 가 구랍 2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이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과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등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수불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연등을 들고,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

하성미 기자

대응공사, 2000명에게 팥죽 대중공양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대응공사(주지 도경)가 구랍 22일 동지를 맞아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에게 팥죽 대중공양을 했다.

대중공양에는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학생들과 홍지만 국회의원,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 반야회 및 청심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응공사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와룡시장 일대에서 지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팥죽을 나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팥죽을 전달했다.

주지 도경 스님은 "불자들이 을미년 한 해를 삼독심, 삼업장을 참회하며 보냈다. 모든 것을 나눠줄 뿐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겨 대중공양에 나섰다"면서 "항상 베푸는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참불자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응공사는 매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2015전진대회

김정연 단장, 제9대 단장 연임



1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한 포교사들의 회향잔치가 열렸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구랍 20일 광주 수자타에서 '2015포교사 전진대회' 를 개최하고, 1년간 활동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과 격려의 시간을 진행했다.〈사진〉

행사는 前 백양사 주지 원일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노휴 스님, 송광사 포교국장 각안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시상식,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공로패는 수자타 대표 혜법 스님과 소년원팀 정두애 포교사가 수상했다. 총재상은 염불봉사팀 권말려, 포교사단장상 김성일 · 김미옥 포교사, 지역단장상 이순옥 · 강성덕 · 반재연 · 노명숙 · 김진희 · 문선순 · 박종무 · 안광선 · 정명선 · 홍경옥 포교사가 받았다.

제8대에 이어 제9대 광주전남지역단장을 연임하게 된 김정연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교일선에서 수행하시는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년에도 호남불교의 발전과 새로운 희망을 위해 다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 1년간 진행한 행복바라미 모금액 680만원에 대한 전달식도 열려 지역 청소년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